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어린이·푸른꿈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3일(금) ~ 25일(일)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참여한 학생들과 수고한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 어린이학교가 졸업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관 2층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장미숙 권사 (감사)
박광희 목사 · 이근자 사모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4 호

2026년 1월 2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AI와 숏폼 너머, 다시 '사람'에 주목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한국교회의 문화적 트렌드를 살펴보고, 향후 목회와 선교 방향성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발제자들은 가벼움을 추구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자극적이고 비인간적인 콘텐츠를 넘어 공동체가 가진 의미와 본질에 집중하며 긴 호흡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략) 이번 행사에는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 교회미디어센터 조성실 센터장, 문화선교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심플 처치의 부상 : 첫 발제자로 나선 백광훈 원장은 "최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작은 교회(심플 처치) 서사가 부상하고 있다"며 "작지만 본질에 충실한 교회"라는 이미지가 교인들 사이에 호소력 있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략) 백 원장은 "심플 처치는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내린 결과"라며 "교회의 본질과 핵심 언어에 집중하면서 보다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한 교회가 바로 심플 처치"라고 분석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심플 처치의 부상은 단순히 유행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성장과 확장의 언어가 통용되지 않는 이 시대엔 사역의 양보다 방향과 정체성이 중요해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회의 자기규정이 핵심이 된다는 게 백 원장의 설명이다.

#AI, 이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질문할 때 : 인공지능(AI) 미디어를 주제로 발제한 조성실 센터장은 "2025년에 AI를 써도 되는가를 고민했다면 2026년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2026년에 특히 유념해야 할 AI 흐름으로 △에이전틱(agentic) AI 등장 △AI 슬롭(slop) 현상 △책임있는 AI 활용 등을 꼽았다. 기존 AI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에이전틱 AI는 인간이 '실행자'가 아니라 '지휘자'의 역할

을 맡게 되며, AI에게 결과를 요구하기보단 더 나은 답을 향해 과정을 구축해나가는 협력을 선택해야만 한다. (중략) AI 슬롭은 AI가 생산해낸 저품질 콘텐츠를 뜻하는데, AI 슬롭의 범람은 교회로 하여금 단순한 AI 콘텐츠 생산자가 아니라 긴 호흡 속에서 신앙과 의미를 축적하는 경험을 기획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AI 기본법 시행 등 AI 활용에 있어 윤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흐름은 교회로 하여금 무분별한 AI 활용과 자극적 콘텐츠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다시, 사람'으로 : 청년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다룬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AI로 만든 콘텐츠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사람다운 이야기'를 갈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빠르고 자극적인 숏폼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삶의 결을 담은 이야기와 관계, 공감이 오히려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문화 콘텐츠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대로 살아내는 '스토리 리빙'(story living)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략) 김 연구원은 "2026년 교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시, 사람'"이라며 "효율과 속도라는 디지털 논리에 가려졌던 '개인의 서사'를 복원하고 '숏폼의 자극'보다 '롱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화되는 영성 : 지용근 대표는 최근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에 영성의 개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배와 설교 등 교회 활동 참여는 줄어들고 있지만, 성경 읽기와 기도 등 개인 영성 실천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 대표는 "신앙의 약화라기보다 신앙의 방식이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 대표는 "영성 개인화에 대응한 전략으로 심플 처치를 꼽을 수 있다"며 "복잡하면 혼란을 주지만 단순하면 집중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려운 시기를 맞았음에도 부흥하는 소수의 교회들은 소그룹 활성화를 비롯한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 기독교보 1월21일 김바람 기자



가짜를 진짜로 만드시는 하나님

한주간의 말씀

“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

<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20, 436 / 454

기도 : 전향옥 집사

성경 : 사무엘하 4장

제목 : 사울 왕조가 끝나다

1-3절 아브넬의 죽음

4절 사울왕의 마지막 후손 므비보셋

5-8절 이스보셋의 죽음

9-12절 다윗이 이스보셋을 묻다.

해석: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세상의 처세를 따르면 죽음을 맞는다.

적용: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처세 중에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이다.

해석: 다윗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

적용: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해석: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으로 이스라엘을 맡기셨다.

적용: 사랑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자기 뜻대로 했을 때는 확실히 심판받는다.

성서일기

오늘 상영중인 영화 <신의악단>을 보고 와서 느낀점을 나눕니다.

이 영화는 북한의 한 장교가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라는 명령을 받으며 시작됩니다. 그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찬송가를 연습시키지만, 이는 오직 체제 유지와 자금 마련을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짜로 시작된 찬양의 가사들이 연주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영혼 없는 소리였던 음악이 어느덧 참된 고백으로 변해가며, 이들은 목숨을 건 진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완성된 찬양단은 '연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인공 "교남"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던 음악이 단원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심지어 냉혈했던 자신의 마음까지 흔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의 감시와 압박이 심해질수록 이들의 노래는 생존을 위한 거짓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을 감시하는 체제의 눈을 피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뜨거운 진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짜로 시작된 찬양이었을 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 듣는 자의 심령을 쫓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악한 목적(외화벌이)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가짜'였던 그들이 목숨 걸고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자유로운 환경에서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아울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 교회 및 세상의 전쟁과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길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평화의 빛이 비추어지길 기도합니다.

2026년 1월 24일 비움사랑방 최창수 집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67 : 1-4 인도자
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15 : 7 인도자
414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로마서 12 : 9-18 설교자
390 미리내사랑방
“ 기쁨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36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채영학 박경희 / 봉헌위원 : 차현주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복음으로 변화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된 이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쁨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복음의 능력.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산 제물’로 비유하였습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동력. 삶의 변화는 두려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기에 불안해서 강압에 의해서도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기반한 삶의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쁨을 동력으로 삼은 변화는 훨씬 자율적이고 자유롭습니다. 기쁨이 삶의 동력이 될 때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복음으로 나의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바뀌어 집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품은 사람은 이웃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승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멋쟁이학교 >

멋쟁이학교 6학년은 졸업 소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멋쟁이 6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멋쟁이에
서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떠난다는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 올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어
떤 일이 일어나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조혜린

6년간 다녔던 멋쟁이학교를 졸업합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던 6년이었네요. 나름 아쉬운 것도 많은 졸업이지만 추억을 가득
안고 가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학교생활 동안 봐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재언

빠르다면 빨랐던 6년간에 학교생활을 끝마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
습니다. 멋쟁이학교를 다니며 가장 큰 성장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의 저에게 있어 가장 큰 행운은 멋쟁이학교를 다녔다는 것이라고 확

배움과 가르침

신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남을 섬기며 살
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주은

가늠이 안 가고 믿겨 지지가 않는다, 벌써 졸업이라니 아직 1학년일
때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을 했던 게 기억이 난다.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동기들과 비슷한 말이겠지만
추억을 잘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다

멋쟁이학교가 즐거웠고 앞으로 잇을 일은 없을 거다 한마디로 좋았다

추신: 가끔 날 많이 마주칠 때가 있으니까 만나면 인사해줘~

김예흠

졸업하기 싫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 출발이 기대됩니다. 당연했던
일상이 끝나간다는 생각을 하니 잘 모른 채 지나갔던 일상의 소중한
을 깨닫는 것 같아요.

주말바라기, 방학바라기 였던 제가, 6학년은 필수가 아닌 봄학기를
가고 싶어합니다.

진짜 모든 것이 마지막임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고여진

내 자리

지난 번 모임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다. 나는 더도 생각하지 않고 떠오른 답이 '식탁'이었다. 깜짝 놀랐다. 무언가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는 것이.

처음 차를 샀을 때는 차안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난다. 밤에 혼자 커피를 타가지고 나가, 밖인 듯 밖이 아닌 차안에서 마시는 그 자유스러움·안일함이 너무나 좋았다. 비라도 올라치면 그 떨어지는 빗소리에 섞인 커피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당시에 도 거리에 별로 보이지 않던 오래된 '포니2'-'80만원 주고 구매한 오래된 중고차'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나의 성이었고, 아지트였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그리 오래지는 않은 것 같다.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을 그렇게 즐길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생활을 할 땐 학교라는 공간이 좋았고, 가게에서 일할 때에는 가게라는 공간이 좋았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있어서 재밌었고, 아이들이 없을 때는 그 텅 빈 공간의 고요가 참 좋았다. 가게에서는 출근이라는 부담감이 없어서 좋았고, 남편과 함께 라서 좋았고, 그리고 매일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도 그 모든 공간은 현재의 내 '식탁'과는 꺾이나 다르다. 오직 내가 주인이고, 나만의 공간인 것이다. 식탁에 앉아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고,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식탁을 잡고 운동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설아랑 놀기도 한다. 특히나 내가 앉는 자리는 거실 창으로 사계가 훤히 보이는 위치다. 봄의 연초록빛에서 여름의 짙음, 가을에 눈처럼 흩날리는 나뭇잎들과 겨울의 설경까지.

그런데 요새 하나 더 좋아하는 이유가 생겼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실내의 모든 불을 끈 어둠 속에서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좋아졌다. 처음 불을 끈 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식탁에 앉아 잠시 감사의 기도를 한다. 그리고 나면 어둠이 눈에 익어 사물이 다 보인다. 기적같이 신비한 느낌이다. 그게 또 감사하다.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414장, 419장

성 경 : 사무엘기하 3장 19~27절

말 씬 : 영향력이 있을 수록 겸손하자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평화를 위한 기도>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그린란드 영토 편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군대가 파병되면서 강한 대립 양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를 위해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총회를 위한 기도>

이번 110회 총회의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서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 어린이학교 졸업여행의 남은 일정을 위해서
- * 어린이·푸른꿈사랑방 공동체생활을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새해를 시작한게 엇그제 같은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공동체 식구들도 같은 마음 일거란 생각이 듭니다.

강추위 속에서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린이학교 선생님들은 졸업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2월에 있을 일정들 때문에 이번주는 바쁘게 생활할 것 같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